

主題講演

인간의 문제와 간호의 역할

李 鍾 益 박사
<연리지역사회개발연구소장>



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좁아지는 地球를 荒無地로 만들고, 우리 인류의 終局 까지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知識이 파괴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防止하고, 오로지 人間의 幸福과 平和의 追求를 위하여 쓰여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知性人이 가지는 현대에 對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결속과 몸가짐으로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보다 난 人間社會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序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난 수 世紀 동안에 있었던 것 보다 더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識者를 오히려 연켜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人間의 지식축적이, 건설적이

經濟發展과 三次産業이 주는 問題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물론 경제의 성장을

바라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다. 또 그 어느 個人이 그 所得이 늘어 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소비생활의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고, 人間의 意識生活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여기에 우리가 처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農·林·水産業과 같은 一次産業이 主가 되는 近代生活를 벗어나 建設·製造·鑛業 등을 포함하는 二次産業을 통하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서 보는 국민경제의 윤곽은 소위 消費産業을 포함하는 三次産業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간다. 餘暇活動이라던가 각종 公益事業에 대한 요구는 그 배틀 지을 선을 모르고 늘어간다. 教育·의료·保健관리 諸産業이 여기에 압력을 받게 된다. 三次産業이 産業構造上 비중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와 정비례하여 “保健관리 産業”도 그 비중이 늘어간다. 새로운 科學과 의학技術의 발전은 인간의 壽命을 길게 하여 주었고, 이들에 대한 보다 높은 질의 관리는 계속 世界諸國 정책결정자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결여되어 가는 인간성의 회복이 문제화된다. 技術이나 科學文明이 우리에게 남겨준 技術人社會는 人間을 기계화된 로버트로 만들어 人間을 다루려는 작업은 그 다루어야 할 課題가 二重的인 어려움을 나타내게 되었다.

어떻든 人間의 건강관리 문제는 이와같은 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自他가 공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健康관리를 다루는 분야를 총괄하여 건강관리 산업이라고 부르며 이 산업부문의 성장은 괄목할만 하다.

美國에서의 例로 보더라도 Health Care Industry의 成長은 그 어느 他部門보다 더 하며, 美聯邦政府 Public Health Service에 의하면 건강관리 業務에 종사하는 인원이 1980년 까지는 5만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經濟的인 측면에서 보아도 이 부문이 美國의 諸般 산업부문 중에 곧 제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社會問題에 대한 價値觀의 革命

이 世上에 生命을 타고난 모든 人間은, 그들이 제각기 어떠한 環境에서 處하고 있든 간에 人間的인 生을 영유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축적되어 가는 새로운 科學이나 醫學의 知識을 利用하여, 곧 人間은 人間生命이나 그 生活의 質을 改善·向上시켜야 하며, 이것이 곧 건강관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건강관리는 지금의 이 時點에서는 特權으로서가 아니라, 이는 당연한 權利로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個人이 가능한 한 健康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健康한 家庭과 個人의 生活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環境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들이 바라는 건강관리는 신속하고, 親切하고, 安락하고, 차별없는 것이어야 하며,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의료관리의 차이가 없는 社會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건강관리 事業은 어떤 專門化한 職業人이나 機關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해된다면 관리제도는 대대적인 改修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 地域醫學이 가지는 새로운 의의를 찾을 수 있고 Health Care Delivery System은 地域社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Comprehensive하고 Consistant한 건강관리제도라야 한다.

우리들이 바라는 건강관리업무는 또한 새로운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과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도 team work과 그리고 긴밀한 調整이 필요하다. 의료 및 건강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각종 職業分野의 협조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이 coordination의 課題는 看護職에 커다란 挑戰으로 나타났다.

保健管理産業의 發展과 그 問題

韓國에 있어서의 保健管理産業의 發展은 지난 10여년 동안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

근 발표된 保健社會部나 大韓看護協會의 統計數字을 빌려 본다면, 病院 病床數만 하더라도 1960년의 9, 951에서 1973년의 22, 134라는 큰 증가를 보였고, 看護員의 數字的 증가를 보더라도 1960년의 4, 836명에서 1974년에는 25, 000명이라는 격증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두 統計數字로서만 어떤 結論을 짓는다고 보다는 이 分野의 發展을 보여주는 例라고 할 수 있다. 豫言家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보건관리산업이 이 나라에서도 그 어느 한 産業體에 比하여도 成長率이 높은 것이라고 보며,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機會를 이용하여, 우리는 새로운 革命的인 保健管理를 國民運動化하여 새 時代의 要求에 따른 새로운 制度的 改善이라든지, 國民 個人에게 모두 혜택이 미칠 수 있는 財政的,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1969년에 母法이, 公布 國民醫療保險法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 施行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든 간에 政府는 물론 우리 보건관리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professional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團體的으로도 그 責任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이 보건관리 産業體는 지금 적어도 두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오는 그의 諸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근본적인 바뀌어 가야 한다. 즉 하나는, 규모가 커지며 복잡하고 다양화 하여 가는 이 企業을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방법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면, 定着도 있기 전에 破産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機構의 문제, 管理能力을 保有하는 有資格 人員의 充員問題, 保健管理傳達制度의 확립 그리고 保健管理를 위한 현실에 맞는 單價의 책정등이 여기서 문제된다.

둘째는, 患者의 人間化와, 그리고 分離된 個體로서의 患者가 아니라, 家庭이라든가 또는 地域社會에 속하는 全人(whole person)으로 理解하고 받아 들이는 積極적인 자세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消費者 運動이 世界的인 물결을 타고 擴散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患者가 보건관리산업체내에는 중요한 소비자인에 틀림없음을 인식하고, 소비자로서의 患者의 權利를 옹호하여야 하

는 것이다. 專門 職業人을 위하여 또는 病院을 위하여 患者가 존재하고, 그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보던 그 날은 영원히 사라져 가야 한다. Medical Humanism이 그런 것을 말한다. 또 이와같은 보건관리의 實相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이없이 손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 말은 經濟的 地理的 心理的인 그 모든 조건을 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기 위하여 중요한 起點은 地域社會의 그 속에 뿌리박은 地域保健管理所의 設치를 말할 것이다. 病院이나 綜合病院은 그들을 支援하는 施設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哲學的 現實的인 思想의 確立은 消費者 教育과 政策 樹立者들에 대한 政治的 壓力을 통하여 있을 수 있으며 이것 역시 각종 專門職業人의 협조와 단결에서 오는 공동보조로만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看護의 役割

그러면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看護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보건관리산업체의 그 어느 한 職業分野 보다도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때 중요한 역할을 할 profession이 곧 看護라고 확신한다. 전체 보건관리산업체의 흐름과 같이하여 현대 간호의 理念도 과거의 病院 中心의 그리고 疾病의 治療中心의 看護로 부터 이제는 人間中心의 看護로 옮겨 왔고, 諸疾病의 豫防이나 健康의 증진 그리고 보다 나은 共同社會의 形成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韓國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先進國에서도 看護의 위치를 再評價하게 되었고, 사회에서의 간호에 대한 要求는 그 次元이 높아가고 있다. 얼마전 大韓教育者協會에서 발표했던 「앙케이트」를 통한 職業에 대한 Ranking 調查研究의 발표를 보면 看護에 대한 새로운 職業的 인식이 특히 識者間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간호는 이와같이 사회의 새로운 認識과 要求에 따라 그 活動分野를 점차 확대하여 地域社會를 중심으로, 그리고 國民의 속 에 파고 들어가, 地域社會保健의 향상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大韓看護協會에 의한 통계를 보면, 전체 간호원數의 반이상이 서울과 부산의 二大都市에 몰려 있고, 海外로 나간 數와 기타 都市에서 종사하는 數를 빼면, 農漁村에 분산되어 있는 數는 불과 25퍼센트 정도이다. 물론 모든 職業이 大都市에 集中化되어 있는 國家的인 상황속에서 유독히 看護단이 그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간호의 역할과 간호가 國家的인, 産業體 안에서 미치는 영향과 실력의 과시에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또 年齡에 따른 간호원의 분포를 보면 40세 이상으로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數가 全體從事員의 數의 8~9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간호의 業務라는 것이 20대나 30대의 잠시적 職業이 아니고 一生의 職業으로 再確認되어 강한 결속과 指導力을 중시하여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어 看護의 역할을 整理하여 보겠다.

첫째, 간호의 역할은 疾病治療의 제한된 傳統的 역할에서 벗어나, 社會변화의 役軍으로, 公團속에 있는 人間이나 人間群衆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社會의 定義實現에 참여하는 知性人이어야 한다. 教育一般의 문제, 極貧者의 權利問題, 住宅問題, 消費者運動 등등과 같이 어떤 在來의 觀念에 따른 病者中心이 아니라, 人間을 보다 心肉으로 健康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環境의 造成을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물론 질병의 豫防이나 보다 난 건강관리 傳達體制(Health Care Delivery System)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위에서 보는 이런 看護의 새로운 역할은, 看護職業을 傳統的인 醫務職에의 從屬의인 관계에서 解放되지 아니할 수 없게 한다. 즉 看護진단의 獨自性·自主性이 나타난다. 종합적이고 全體的인 健康管理傳達은 그 性格이 inter-disciplinary하고 또 multi-disciplinary하며 이속에서 看護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從屬의이 아니라 對等的인 것이어야 할 것이며, 診療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診료가 필요한 것인가?”라든

가 “이 환자를 위하여 그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의 계기가 있을 수 있어야 하며 이와같은 自主性은 醫務職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自主看護職의 의논이라 할 수 있다. 臨床職이라고 하면, 醫師, 齒醫師, 看護員, 臨床心理學士, 社會專業士 등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para-professional도 참여하는 범주를 말하며, 이들의 상대방의 職業人格을 존중하고 協力·調整하는 사항에서만 참다운 보건의관리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아마 臨床看護員(Nurse-Clinician)의 새로운 養成이나 또는 조산간호원(Nurse-Midwife) 등의 養成을 통하여 自主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태세도 현실에 맞추어; 나아가 미래를 指向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셋째, 保健·病院管理라는 측면에서 看護의 역할을 살펴 본다면,

1. 看護職이 看護관리라는 제한된 테두리를 벗어나 一般管理·운영에 보다 積極的으로 태세를 갖추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의관리의 관제중에서 그 動員力이나 流動性이나 恒久性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이 看護出身이며, 이러한 要求에 응할 수 있어야 하겠고, 새로운 看護教育에 이러한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看護의 臨床實習 참여는 看護教育和 分離될 수 없다. 또한 現實的으로 看護教育者와 看護實務管理層이 分離되어 있는 것 같은 韓國의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 名實共히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병원의 一般·臨床業의 管理運營에 참여하는 綜合的인 Integration이 하루 속히 와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간호는 그들의 충분한 意思가 余般的인 보건의·병원에 관한 政策決定 과정에 反映投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새로운 간호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의 목적이 새로 修正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환자간호를 위한 傳統的인 教育·訓練過程에서 벗어나, 보다 綜合的인 臨床경험과 社會實習과 學校教育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자간호를 위한

참다운 理解는 人間과 人間集團의 完全한 理解와 그들의 건강향상과 질병豫防으로 부터 시작된다. 人間生命의 순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폭 넓은 理解로서 대하고 家庭이라든가 社會集團生活의 原理·實際를 이해함이 없이는 간호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

또 간호는 병든 사람을 돌보기 이전에 病的 原因이 될 수 있는 모든 社會 또는 人間集團의 問題要素의 제거가 必要한 것임으로 社會科學 一般에 對한 充分한 理解가 있어야 하며, 이리하여 비로소 全人看護(total patient care)의 目的을 達成한다.

그리고 看護敎育은 病院看護의 영역에서 벗어나, 全體社會內의 직접기여를 위한, 그리고 철저한 community outreach를 爲한, 나아가 total person approach를 爲한 새로운 概念의 樹立이 시급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看護敎育은 組織관리 일반에 대한 理解와 適用을 위하여 行政原理를 위시한 行動科學의 敎課目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敎育을 만족시키려면 [Human Dynamics] [Family, Group Behavior] [Community Organization] [Sociology of Medicine] [Health

Care Administration] [Economics of Health Care] 등등의 課目을 생각할 수 있다.

結 論

우리는 여러분이 간호人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넓은 視野를 바라보며 이 社會의 人間性 회복운동의 高 先鋒에 서서 全體건강관리산업계의 問題를 다루어 주시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관심과 연구검토의 結果는 직접 國家政策決定過程에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자체의 위치를 알고, 어떤 새로운 위치나 역할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다만 바라고 싶은 것은 동시에 보다 고답적이고 차원높은 선에서 전체 Health Care Industry의 關心事와 이익을 위하여 他職이 비록 同線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모범을 간호에서 볼 수 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技術人이기 전에 참다운 人間을 理解하는 좋은 人間이기를 바라며 이만 하겠다.

“색인(索引)”발간을 위한 간호관계 자료수집

본회는 그동안 「대한간호」에만 국한되었던 「색인」을 지양하고 간호관계 전반에 걸친 「색인」을 발간코자 회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간호관계 각종 저술목적이 내용별로 다 수록되어 이 한권만 가지면 「간호」의 모든 것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면 간호교육계에 계신 회원이나 또는 연구를 하는 회원이던 누구에게나 金요한 資料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업이 참신하게 이뤄지도록 아대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호관계 기사가 실린 각종 잡지
2. 간호학 각종도서 (도서명, 저자, 발행년월일)
3. 간호학 석사학위, 박사학위논문 (제목, 저자, 소속학교 년월일)
4. 기타 관계자료

(현물기증이 어력우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시 요망)